

세탁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수막뇌염, 진균감염

성별	남성	나이	만 60세	직종	세탁업체 근로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19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병원에서 세탁물수거 및 배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체중이 7kg 이상 감소하였고, 2019년 11월 20일 귀밑과 머리가 아파서 로컬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그 후 2019년 11월 29일에 병원에서 염증수치가 높음을 발견하였고, 큰 병원 진료 권유받아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처음 간 곳은 가정의학과였고 이후 신경과로 전원하여 뇌 MRI와 가슴 CT에서 진균 감염 소견 보여 만 60세가 되던 2019년 12월 17일 주상 병 수막뇌염을 진단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25일 발급된 진단서에는 주상병 수막뇌염과 부상병으로 진균감염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9년 12월에 퇴사하였고, 2020년 2월에 퇴원하였다. 근로자는 병동의 환자복 및 신생아 옷 등 오염된 세탁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밀폐되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영향을 주어 진균에 감염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19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2019년 12월에 퇴사하였다. 근무장소는 병원으로 2인 1조로 근무하였으며 세탁물 수거 및 배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 08:00-17:30, 화-토요일은 08:15-17:30이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19년 10월부터 체중이 7kg 이상 감소하였고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2019년 11월 20일 오른쪽 귀밑 통 증과 오른쪽 측두엽 부위 두통

및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로컬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29일에 내과에서 염증수치가 높음을 발견하였고, 큰 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2019년 12월 2일부터 구강악안면외과, 가정의학과, 안과, 호흡기 내과 등을 경유하여 2019년 12월 16일 신경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시작하였다. 2019년 12월 2일 뇌 CT에서는 특이소견 없었으나 2019년 12월 11일 가슴 CT에서 양측 폐에 공동과 함께 염증성 결절로 진균감염이 의심되었다. 당시 객담 AFB smear 및 PCR에서는 음성이었다. 2019년 12월 17일의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호중구(neutrophil)가 다수로 림프구(lymphocyte)는 거의 없었지만 2019년 12월 27일 뇌척수액 재검사에서는 림프구가 다수로 호중구가 거의 없었다. 2019년 12월 18일 시행한 머리 MRI 소견은 두개골 기저부, 양측 해면정맥동 및 뇌하수체에 미만성 침윤 병변과, 왼쪽 안정맥의 폐색으로 양쪽 안와 공간에 염증 의심 소견으로 1. 진균감염, 2. 결핵 뇌수막염이 의심되었다. 한편 2019년 12월 18일에 (1-3)beta-D-Glucan 정량검사서 양성(>1000) 소견 보여 진균감염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 밖에 2019년 12월 6일 CRP가 12.1 mg/L로 참고치인 0.1-6.0 mg/L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9년 12월 18일 최고 187.5 mg/L까지 측정되었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결핵균 특이항원 IFN-gamma 검사서 음성 소견이었으며 Mycobacterium tuberculosis, Clonorchis sinensis, cryptococcus 모두 음성이었다. 2019년 12월 30일 Aspergillus IgG 항체는 음성 이었다. 2019년 12월 22일 Candida 항원 양성 이었지만 2020년 1월 2일 재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 종합적으로, 뇌 MRI와 가슴 CT에서 진균 감염 소견 보였고 (1-3)beta-D-Glucan 양성 소견을 보여 60세가 되던 2019년 12월 17일 주상병 수막뇌염과 부상병 크립토콕쿠스 수막염으로 임상적 추정 되었다. 이후 2020년 2월에 발급된 진단서에서는 주상병 수막뇌염과 부상병으로 진균감염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59년생)은 만 60세가 되던 2019년 12월 수막뇌염과 진균감염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9년 1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병원에서 세탁물 수거 및 배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12월 퇴사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병원 내에서의 진균 감염이 있다. 근로자는 세탁물 수거 및 배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와 일회용장갑만을 착용한 채 작업을 수행하여 진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들도 진균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병원 근로자에서 진균 감염 사례도 역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